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⑥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석가장 시대를 지나 점심 경 중국의 심대 사찰 중

에 하나인 룡흥사에 도착했다. 정정현에 위치한 룡

흥사는 황제들이 오대산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

에 위치해 황제들이 쉬어가는 황궁 사찰이었다. 그

만큼 현재에도 대규모 사격을 유지하고 있다.

주자장이 위치하고 있는 일주문 앞에는 모조품 골

동상인들을 비롯해, 불구유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여행객들 호객하고 있다. 앞서 답사한 비로사의 한

적한 풍경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심대사찰 중 하나로, 석가장상을 대표하는

룡흥사는 수나라 개황6년(586)에 용장사(龍藏寺)라

는 이름으로 창건된 사찰로 송나라 이르러 그 규모

가 커졌으며, 이후 원·명·청나라를 거치면서 가람

중수가 이뤄졌다.

청나라 강희 45년(1706)에 룡흥사(隆興寺)라는 편

액을 황제가 하사하면서 사찰 명칭이 바뀌었다. 강

희황제는 황제의 상징이 용이기 때문에 용이 들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용장사를 개명해, 룡흥사라고

하었다고 한다. 거대한 청동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어 대불사(大佛寺)라는 별칭도 갖고 있으며, 거리

의 안내 간판에도 대불사라고 표기되고 있었다.

룡흥사는 가람배치가 남북 중심축에 주요법당을,

중심 좌우로 요사와 정원을 조성해 놓았다. 사찰 입

구에는 석교가 있고, 천왕문, 대각육사전 터, 마니전,

계단, 우측에 자씨각, 좌측에 전륜장각, 강희어비정,

우측에 건륭어비정, 관세음보살을 모신 대비각, 대

비각 우측에 아서루, 북쪽에 미타전 등 주요 건축물

이 배치돼 있다.

룡흥사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며, 특히 금대에 조성된 룡흥사 마니전은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중국 건축물을 연구하

는 학자들이 방문하는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중국의 현존하는 대표 목조건축물로 손꼽히는 룡

흥사마니전(隆興寺摩尼殿)은 건축물 전신이 모두 두

터운 벽으로 둘러 쌓여 있고, 정면에만 문장을 뚫으

로써, 전내의 광선은 전반적으로 어둡다. 마니전의

외관은 아주 특별한 풍치가 있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로서는 전문 용어를 알 수 없으나, 건물을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구조로 만들

어져 있는 아(亞)자형이 특징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특징은 송대의 회화에 나타나고 있는 건축

물과 아주 유사하다고 한다. 이는 일본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눈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물과

흡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마니(摩尼)'는 최상의 보배로서 여의주와 같은

의미가 있으며, 중국에서는 '마니'를 '부처님'에 비

유하고 있다. 내부에는 소조불상인 석가여래좌상과

좌우에는 가섭과 아난존자를 비롯하여, 문수, 보현

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석불단 정면, 측면에 조각돼

있는 금강역사상은 서양인과 흡사한 모습으로 사실

적으로 조각돼 있다.

사면의 벽에는 명나라 가정42년(1563)에 그려진

벽화가 남아있다. 중국 벽화 예술의 걸작품중에 하

나로 평가받는 이들 작품은 <무량수경>에 나타난 극

락세계와 <석씨원류>의 부처님 일대기가 정밀하게

현현하고 있다.

후면에는 수미단 위에 소조 관음보살좌상에 채색

돼 아름다운 자세를 뽐내고 있다. 마니전 주변에는

화재를 대비한 인공호수를 만들었고 주변에는 측백

나무를 심어 방풍을 하고 있다. 룡흥사의 가람배치

는 현존하는 송대 불사 건축의 전체 배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다. 북쪽으로 마니전이 배치됐으며,

좌우에 배전이 남아있다. 주요 건축물인 불현각

과 그 앞의 양쪽에 전륜장전, 자씨각 및 기타 부처적

인, 누, 각등으로 구성하는 형식이 뛰어난 공간 조성

이 돼 있는데 이곳은 룡흥사 전체 가람구조의 정점

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대각육사전은 훼손됐다.

미타전은 사원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비각은

높이가 약 33미터로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안

에는 약 24미터의 사십이수관음을 받들어 모셔져

있다. 대불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만큼 이 절의 상징

이 된 대불상은 북송개보 4년(971)에 주조된 것으로

현존하는 중국 고대 최대의 동불상이다.

보살상의 높이는 19.2미터, 수미단 높이는 2.2미터

로서 42수 관세음보살상으로, 양식은 송나라 양식이

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의 협시보살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와 25유(4악취, 수미4주, 육계 6

천, 색계 7의 18천, 무색계 4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가운데 손은 원래의 손이며, 나머지 40수

는 신통력을 나타낸 것으로 좌우에 각각 20개의 손이

있어 손마다 25유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40수에



룡흥사 마니전의 벽화. <무량수경>의 극락세계(위)와 <석씨원류>의 부처님일대기(아래)를 정밀하게 표현했다. 중국 벽화 예술의 걸작품 중 하나다. 명나라 가정 42년(1563)에 그려졌다.

중국 심대 사찰로 평가받는 룡흥사 마니전은 중국대표 목조건축물 중 하나

마니전벽화, 극락세계와 부처님 일대기 전륜장전 내 직경 7m 8각형 윤장대 있어

했으나, 현재 윤장대는 움직일 수 없이 보호되고 있다.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묘사 윤장대를 압도 하지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편리성은 문묘사 윤장대가 나은 것 같다.

다음은 맞은 편에 있는 자씨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씨각의 전각은 3층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7m 이상의 통나무로 된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다음은 정면으로 정정현 내의 서남쪽 거리에 위치한 정정현에 도착했다. 정정현은 차기 중국의 지도자로 지명된 시진핑이 공산당서기를 지낸 곳으로, 시진핑이 국가 주

석에 오르면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한다.

정정현에는 지역이 자랑하는 4대 탑이 있어 이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천녕사의 룡소탑은 벽돌과 나무로 혼합되어 건축되었는데 높이가 60m이고 정정현 내에서 제일 높은 탑이라고 하며, 당대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청탑으로 정정현 내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당 함통 8년(867년)에 건축됐으며, 높이는 33m이고 모두 벽돌로 지어진 8각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전탑으로 정정현 내의 서남쪽 거리에 위치한 개원사 수미탑이라고도 부르며, 탑은 정방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48m의 높이이다. 이 수미탑은

정암사의 수마노탑이 연상되어 지는 탑이다. 마지막

으로 들린 곳은 화탑으로 정정현의 남문 쪽에 위치하고 광휘사 다보탑이라고도 하며, 당 정원년간에 건축되고 금, 명, 청 시기에 개축했다. 45m의 높이에 정 8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많은 동물상이 조각돼 있다. 4대 탑이 시내 곳곳에 위치한 정정현은 문화가 살아 있는 고도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단아한 도시라는 인상이 든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박도화·정찬민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니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계자, 증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증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증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이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에비스님)모집